

# 광주 학생연합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행진'

광주 YGA 연합동아리(살레시오 중, 용두중, 월곡중, 송의중, 빗고을 고, 세품기독교교)가 지난 14일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을 위한 행진을 실시했다.

18일 광주 YGA에 따르면 이날 평화행진은 광주 YGA 동아리 소속 중·고등학생 90여 명과 함께했다.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구도청 광장까지 '우크라이나에 생명, 평화!'라는 주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종단을 촉구하기 위한 행진을 진행했다.

'광주 YGA(Youth Global Action) 연합동아리'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슬로건으로 '알'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배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설립됐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기후, 환경, 인권, 평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 5·18 기념,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 실천



광주 YGA 연합동아리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행진' /광주시교육청 제공

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구성한 연합동아리다.

광주 YAG 소속 교사와 학생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기를 기념해 민주와 평화·연대의 5·18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오월길(햇볕 코스)을 걸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단과 우크라이나에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실천한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현재 고령인 마을 새날학교 교사이자 자신의 아버지와 형이 우크라이나 시민군으로 싸우고 있는 안드레이 활동가가 직접 구도청 현장을 방문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안드레이 활동가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는 액션의 중요성 ▲일회성의 이벤트나 후원이 아닌 전쟁 중단 촉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SNS 같은 통로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를 위한 한목소리의 중요함 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호소했다.

한편 광주 YGA는 이번 평화행진과 학교별 활동을 통해 모은 후원금 전액을 광주 고령인 마을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글로벌 프렌즈)을 찾아 직접 기부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 포토뉴스



신안혁신중 5회 동창회, 전교생 체육복 기증 신안혁신중학교는 지난 14일 제 5회 동창회로부터 전교생에게 마음을 담은 체육복 19벌을 기증받았다. 신안혁신중 선배 동문들은 매년 모교 사랑 선물 및 장학금을 전교생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좌)와이마트몰류 'K-명장과 함께하는 진로캠프' 후원금 전달

광주시부교육지원청이 (좌)와이마트몰류 측에서 광주광역시 지역 아동들의 진로 및 직업 탐색 지원을 위한 'K-명장과 함께하는 진로캠프' 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은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과 굿네이버스광주전남지역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K-명장과 함께하는 진로캠프, 청소년들이 길을 묻다(시즈2)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김도기 기자



광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찾아가는 인형극' 동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9~13일 어린이 3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사냥꾼에게 속은 튼튼대장 호랑이!'를 실시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 광양중마도서관 '북스타트 부모교육' 힘찬 출발

광양중마도서관은 도서관 어린이실에서 '2022년 부모 인문학교실'의 첫 번째 순서로 그림책 전문가 정봉남 작가 초청 강연을 열어 수강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강연은 지난 16일 거리두기 해체에 따라 오랜만에 강연장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온라인 교육에 익숙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ZOOM)으로도 동시에 생중계됐다.

정봉남 작가는 현재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순천기적의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1호 기적의 도서관을 전국적으로 알

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림책 토크, 내 마음에 토크', '아이책 읽는 어른' 등 독서 관련 책을 집필한 정봉남 작가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북스타트 코리아 상임위원과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의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책을 토대로 한 문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정 작가는 '북스타트와 사회적 육아'라는 주제로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을 설명하면서,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령별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과 놀이법에 대해 강의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 전남 지역 학생들,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추모 이어져

### 민주국립묘지 찾아 5월 정신 기려 '뜻 이어가겠다'



전남도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9~20일)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학생들의 민주·연대·공동체 정신을 기리는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각급 학교 학생회와 학교연합회 회원들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와 헌화로 5·18 정신

을 되새겼고, 추모 헌수막을 학교 정문에 게양했다.

12일 고흥지역 학생 5·18 사적지 탐방단 30여 명은 참배 후 5·18기 특관, 전일빌딩245 등 금남로 일대를 찾아 5월 영령들을 추모했고, 13일 영암 월출학생자치연합회는 '오월영령의 희생과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각 학교에서도 추모 사진 전시회, 퀴즈대회, 옛 전남도청 건물 조립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또 다른 기억, 전남의 5·18이야기' 책자를 비롯해 '오월길을 따라서' 보드게임, 수업구미 등 수업자료와 리플렛 등을 제작해 희망하는 학교에 배부했다. /박종배 기자

이에 앞서 9일 진도지역 학생들은 '5월 광주, 열흘간의 항쟁일지' 전시회를 가져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주, 장성, 화순, 신안 등 전남 지역 학생들도 5·18 유적지를 찾아 체험활동을 했다. 참배를 마친 고흥학생연합회 한 학생은 "마음이 무겁다"며 "오월영령의 희생과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각 학교에서도 추모 사진 전시회, 퀴즈대회, 옛 전남도청 건물 조립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또 다른 기억, 전남의 5·18이야기' 책자를 비롯해 '오월길을 따라서' 보드게임, 수업구미 등 수업자료와 리플렛 등을 제작해 희망하는 학교에 배부했다. /박종배 기자

## 자원순환 문화 확산 나서 북구 1회용품 보증금제 홍보

북구가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에 나섰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다음 달 9일까지 주민과 1회용품 사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한다.

1회용품 보증금제는 사업자가 1회용품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사용한 사람이 다시 가져오는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북구는 1회용품 사용자 주민과 휴게·일반 음식점 및 제과점 등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운영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배부하고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 한전KPS '온정의 장학금'으로 남아공 추가계약 성과

### 2년 연속 남아공 대학생에 장학금 지급...신뢰 '쑥쑥'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지난해 이어 해외 사업소 매출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글로벌 ESG(환경·사회적 책무·거버넌스)경영 실천과 해외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18일 한전KPS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 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교 재학생 12명에게 총 72만 랜드(한화 약 6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생 1인당 수여금액은 6만 랜드(한화 약 480만원)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지난해처럼 학업성과가 계획서를 제출한 2~4학년 재학생 중 차세대 기술명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으로 선발했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해 남아공 츠와네 공과대학 재학생 29명에게 총 174만 랜드(한화 약 1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는 그해 매출액의 1.25%를 현지 지역사회에 돌려준 데 이어 토종 기술성장 육성을 도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기호 기자



남아공 전력당국은 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력은 물론이고 이익금을 지역사회와 나누겠다는 약속을 지킨 한전KPS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같은 신뢰도 향상은 지난 3월 230억원 규모의 추가 정비사업 계약 성과로 이어졌다. /주기호 기자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박오주 이사장 취임...3년 임기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18일 신임 박오주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국화와 연구기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국화와 연구기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 전남도립대,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

### 국립전파연구원과 인력양성·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전남도립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도립대는 국립전파연구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병호 총장,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김영래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 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협력 ▲전파·방송·통신 분야의 연구 및 기술정보 교류 협력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의 공동 활용 ▲지역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등이다.

박병호 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대학과 기관의 상생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 "오랜만에 만나 반갑소!" 소통경로당

### 동구 15개소 '따스한 봄날 힐링야외 프로그램' 운영



동구는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지원 및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소통경로당을 중심으로 '따스한 봄날 힐링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여가활동 제약을 받았던 어르신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5~6월 두달 동안 용산·세연·성촌·산수 등 관내 소통경로당 15개소를 찾아가 경로당 회원과 이웃 어르신을 모시고 전문

MC와 함께하는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참 좋다"면서 "시일 내에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모두 지키는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년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순천경찰, 순천대 유학생 범죄예방 교육

### 보이스피싱 불법 가담 등 범죄 유형 사례 교육



순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순천대학교 문화강당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의 보이스피싱 불법 아르바이트 가담 등 국내 정서에 미숙한 이들이 이용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사례 교육을 통해 참석한 유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순천대어학원에 재학중인 A(25세)씨는 "고소

득 아르바이트로 알려진 일이 이번 교육을 받고 보니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에 처음 적응하는 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호응했다.

순천경찰서는 관내 외국인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측과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순천=조순의 기자